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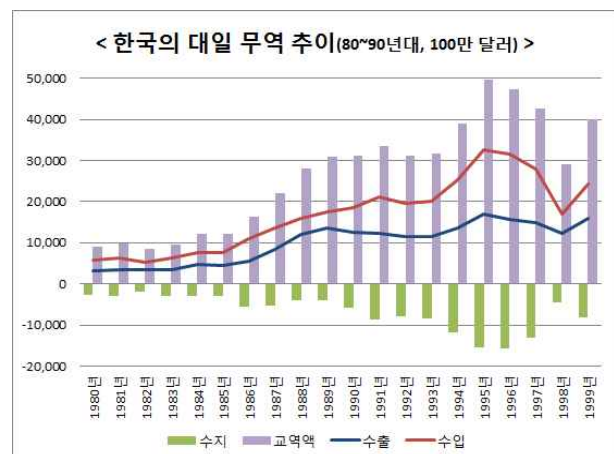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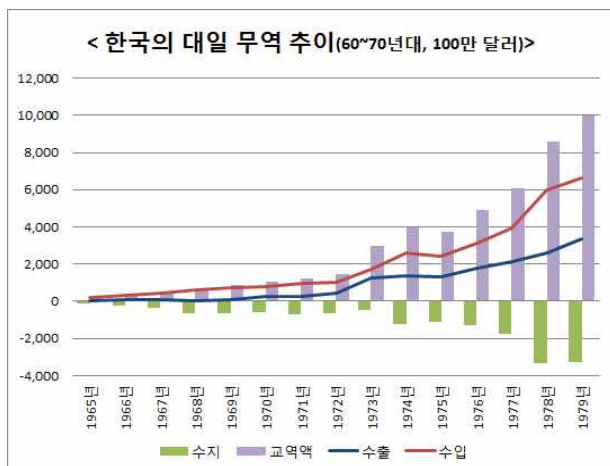
한일 무역 관계의 발전 패턴

* 이 자료는 가사이 노부유키(笠井信幸) 아시아경제문화연구소 이사가 「동양경제일보 가사이노부유키의 이해하기 쉬운 한국경제강좌(‘15.7.31)」에 기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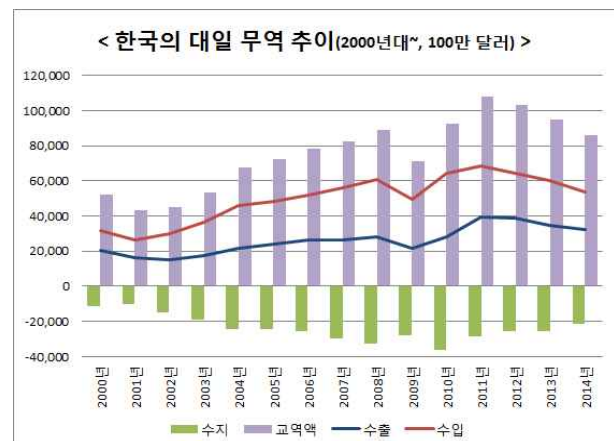
- ‘65년 이후 한일 양국의 무역량은 계속 확대해 왔으며, 동시에 한국의 對日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유지
- 과거 한일 무역 관계에서는 의존기와 자립기로 구성된 사이클이 반복, 최근에는 그 패턴이 변하면서 한일 경제 및 세계 경제에서 한국의 독자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음

□ 증가하는 한일 무역과 對日적자

- 과거 50년간 한일 무역량은 비약적으로 증가, 무역 총액은 389배로 확대



- 무역교역액 '65년 2억 2,100만 달러, '14년 859억 5,200억 달러까지 증가
- 한편 그동안 한국의 對日적자는 계속해 왔으며 '65년 1억 3,000만 달러, '10년 361억 2,000만 달러로 최고를 기록하고 '14년은 215억 8,400만 달러로 '65년 대비 166배 수준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한국의 對日적자는 단순한 무역수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산업 발전과 긴밀히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음

(1) 적자 성선설(性善說)

- 對日 수입으로 적자가 되어도 수입재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추가하여 수출 이익을 내며 종합수지 흑자를 유도
- 이 과정에서 산업 발전이 촉진되기 때문에 對日적자는 한국의 경제·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로 간주하는 시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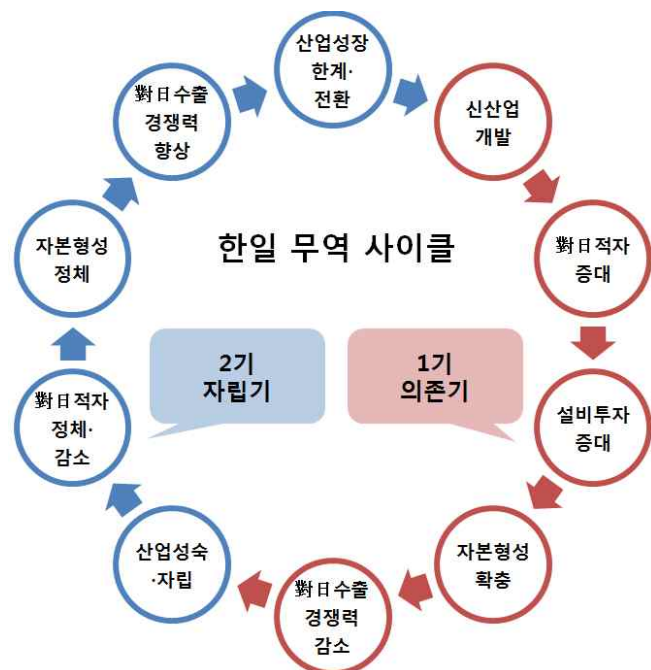
(2) 적자 성악설(性惡說)

- 對日적자는 산업 발전의 핵심인 제품 조립 영역(하류 산업)의 발전에 비해 원재료·소재 영역(상류 산업), 부품·반제품 영역(중류 산업)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불균형 산업구조를 초래
- 균형적인 생산 공정의 자립적 달성을 목표로 해야 하며 수지를 국가별·개별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對日적자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시각

□ 반복해 온 한일 무역 사이클


- 가사이 이사는 과거 50년간의 한일 무역관계를 관찰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주장

- 1기(의존기) : 신산업 개발→對日적자 증대→설비투자 증대→자본형성 확충→對日수출 경쟁력 감소
- 2기(자립기) : 산업성숙·자립→對日적자 정체·감소→자본형성 정체→對日수출 경쟁력 향상→산업성장 한계·전환→신산업 개발→보다 높은 산업단계와 새로운 한일 무역 사이클로 돌입
- 가사이 이사에 따르면 현재 이 사이클은 6번 반복되어 왔음



< 과거 한일 무역 사이클의 구분과 산업 전환 >

1964~73년 - 1기(의존기) '64~'69년 - 2기(자립기) '69~'73년	① 경공업·노동집약재 사이클 사채동결('72년 8.3조치)과 많은 차관 기업의 도산이나 기업 부채 팽창
1974~82년 - 1기(의존기) '74~'78년 - 2기(자립기) '78~'82년	② 중화학공업 사이클 중화학공업화 아래서 과잉투자에 의한 기업 도산과 농업 흉작이 겹친 80년 불황
1983~89년 - 1기(의존기) '83~'86년 - 2기(자립기) '86~'89년	③ 자본집약재 사이클 '84년의 산업합리화 조치 이후 대규모 기업의 연쇄 도산
1990~98년 - 1기(의존기) '90~'96년 - 2기(자립기) '96~'98년	④ 기술집약재 사이클 기업 부채 팽창과 해외 부채 증대, 대통령 선거와 재벌 도산, 아시아금융위기와 IMF 긴급융자 요청
1999~2006년 - 1기(의존기) '99~'04년 - 2기(자립기) '04~'06년	⑤ IT 산업 사이클 IMF 관리체제 하에서 금융, 기업, 공공, 노동 부문 4대 개혁
2007년~ - 1기(의존기) '07~'10년 - 2기(자립기) '10년~현재	⑥ 부품·소재 산업 사이클 세계금융위기, 한중일 통화협력과 해소, 경제·사회 양극화 심각·수요 축소·신성장동력 부재에 의한 산업 전환력 약화

- 한국에서 어떤 산업이 성장하면 對日 의존도가 높아지지만 그 산업이 성숙하면 국산화가 진행되고 對日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립화, 그 산업의 사이클이 종료하면 보다 고도 산업의 사이클로 이행하면서 산업 발전을 달성
-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이클의 규칙성이 상실, 6번째 사이클의 중심적 산업인 부품·소재 산업의 성숙이 요인
 - 지금까지 부품·소재 산업은 對日적자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'01년에 한국정부가 「부품소재특별법」을 책정하여 제1차~제3차 기본계획('01, '09, '13년)의 실시 및 3조원 규모의 R&D 지원을 통해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생산성이 향상
 - 또한 수입 시장을 일본에서 중국, 베트남, EU 등으로 다각화함으로써 對日적자가 감소
- 과거 50년 한국경제는 일본에 대한 의존에서 자립의 과정을 걸어 왔지만, 향후 50년은 한중 경쟁과 협조를 반복하면서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.  KJCF